

## 대학 강단에서 마크 트웨인 가르치기

최정선

(한국싸이버대)

Choi, Jungsun(2004). Teaching Mark Twain in Undergraduate British and American Novel Clas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2), 159~176.

Mark Twain's works are very good texts for students' understanding of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deeply and comprehensively. However, professors teaching Mark Twain could be confronted with several problems: how to teach vernacular language in his works; how to deal with the massive volume; how to teach various issues systematically.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based on my experiences of teaching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nd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in novel classes. One of good methods of discussing the various issues systematically in his works is focusing on his contemporary dominant discourses and his critiques on them. In teaching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the black discourse is the comtemporary dominant dicourse to concentrate on. I tried to discuss various issues in my classes, mainly relating them to exploring how Twain was contained in his contemporary black discourse and how he resisted it at the same time. The representation of the blacks in the work is a good example to show this. To what extent Huck can have human relationship with Jim is an important question to contest his interaction with his contemporary discourse. In my paper I examine various issues and problems I was faced with in the classes. In teaching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the crucial discourses are industrialism and modernity. Here, what must be paid attention to is that although industrialism is a part of modernity, it is convenient

to deal it separately from the issue of modernity. Twain was dominated by those discourses, but he criticized them on the other hand. Various issues can be discussed, related with the question how much he was contained in the discourse of modernity and how much he criticized it. Students' understanding of this work and his contemporary dominant discourses can be enhanced by discussing his ambivalence toward modernization, democracy, and the Medieval feudalism.

[Mark Twain/teaching issues, 마크 트웨인/강의장점]

I.

영미 소설을 가르치는 데 있어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작품은 빠뜨릴 수 없는 교재라는 것은 영문학 교수들 사이에 널리 인정되는 바다. 그가 미국 문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가중의 하나이며 그의 작품의 후대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헤밍웨이가 언급한 “모든 미국 현대 문학은 「허클베리 편의 모험」(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885)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책 한 권에서 유래한다”라는 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그 작품은 미국 문학을 가르치는 모든 교수들이 꼭 한번 가르치는 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책이 갖는 플롯의 흥미진진함은 차치하더라도 문학 사적 중요성--가령 유머라든지, 사실주의, 그리고 인종 문제에 있어서--이 크기 때문이다.

트웨인에게는 「허클베리 편의 모험」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미국 소설에 대한 흥미와 미국 문학과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는 작품이 다수 있다. 가령 「탐 소여의 모험」(Adventures of Tom Sawyer)은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진진하고 즐겁게 소설을 읽으며 동시에 미국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아더왕궁의 커넥티컷 양키」(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는 미국의 산업주의와 근대성의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준다. 장편 이외에도 단편 소설 역시 학생들에게 미국 문학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는 작품이 다수 있다. 가령 「캘라버라스군의 악명 높은 뛰는 개구리」('The Notorious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 1965)는 미국 문학에서 사실주의 문학이 어떻게 태동

했고 변경 지방의 유머가 어떻게 미국적인 유머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유쾌한 작품이다.

그러나 많은 교수님이 부딪히는 문제는 트웨인의 작품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느냐이다. 『허클베리 펁의 모험』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표준 영어에 익숙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짐과 혁의 사투리 구어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분량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읽히고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각 교재에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필자 역시 트웨인의 작품을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에 항상 부딪혀 왔다. 사실 트웨인의 작품은 흥미롭고 교재로 적당한 듯 하면서도 막상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하면 어떤 쟁점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허클베리 펁의 모험』과 『아더왕궁의 커넷티컷 양키』를 강의 시간에 가르쳤던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는지를 공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트웨인의 작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이 들어 있어 그것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학생들에게 중구난방으로 설명하고 강의 역시 방향성 없이 훌러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강의의 방향성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배 담론과 그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트웨인의 작품에 접근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트웨인은 당대의 사건들과 사상, 더 나아가 당대의 지배 담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 받았던 작가이며, 동시에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작품 속에서 그것을 재현한 작가다. 예를 들자면 트웨인은 당대 산업주의 담론에 영향을 받아 본인이 직접 발명도 하고 그것에 대해 투자도 했으나 동시에 그러한 산업주의 담론이 인간을 어떻게 폐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한 작가이다. 바로 이러한 지배 담론을 중심으로 각 작품을 다루면 작품 속에 있는 다양한 쟁점들이 쉽게 정리가 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방향성이 잡힌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 II.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가르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우선 영어가 구어체이며 트웨인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사투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sup>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부분은 번역본을 참조하도록 허용하면 그들의 읽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학생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원작을 억지로 읽게 하면 학습 효과와 흥미가 반감되는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에게 먼저 원작을 읽도록 노력하게 하고 번역이 잘 안되는 부분만 번역본을 참조하게 하면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 이 교재를 다룰 때 학기 초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작품에 나오는 몇 가지 특이한 문법 사항과 함께 발음과 철자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 학생들로 하여금 조를 짜서 장(chapter) 별로 나누어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조사하게 하여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 자료를 가지고 원작을 읽게 하면 학생들이 읽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 작품은 내용을 상세히 읽고 중요 부분은 학생들과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여야만 학생들이 이 작품의 문장에 쉽게 익숙해지며 또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트웨인과 당대 담론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강의 진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생략한 채 줄거리만 설명하고 중요 장(chapter) 만을 선택하여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경우 때로 1-4 장, 15-18 장, 22 장, 31장, 38-43장만을 선택해 가르치고 나머지 장은 줄거리만을 다루었는데도 학생들이 흥미로워 했다.

어느 강의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작품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발표자를 잘 활용하면 흥미로운 수업을 이끌 수 있다. 필자는 수강 학생들을 세 명씩 나누어 발표 그룹 만들었다. 한 그룹에서 발표자를 한 명씩 정하고 발표자는 말은 부분에서 중요한 쟁점 두 개 정도를 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1) 트웨인 자신이 책의 첫 부분에 있는 설명문(Explanatory)에서 설명했듯이 이 작품은 미주리 주 흑인의 방언에서부터 파이크 지방(Pike Country) 방언 등 수 많은 방언을 섞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혁파 짐이 사용하는 구어체는 어느 한 지방의 사투리가 아닌, 어쩌면 트웨인이 창조해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룹의 나머지 두 명의 학생들은 패널이 되어 그 문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필자는 발표 내용을 필자에게 3-4일 전에 제출하게 하고 발표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야 만 토론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강의가 되었다. 물론 교수가 토론 중간에 수시로 중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야 흥미로운 토론이 된다.

이 작품에서 논의의 큰 틀이 되는 담론은 트웨인 당대의 인종 담론, 특히 흑인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흑인 담론이란 당대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흑인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검둥이”(The Negro)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흑인이 인간 이하이며 의지가 약하고 게으르며 품행이 나쁘고 미신을 잘 믿은 소모품 같은 존재라는 개념을 사람들의 무의식에 심어주는 담론을 일컫는다(Smith, 92-3). 그리고 노예제나 그 이후의 흑인에 대한 억압적인 체제는 바로 이러한 담론을 중심으로 유지되며, 이 작품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강의에서 학생들과 다루는 여러 가지 논의 중 트웨인이 당대의 흑인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비판했는가를 중심으로 하면 강의의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듯싶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흑인의 재현 문제도 바로 이러한 흑인 담론에 대한 트웨인의 태도라는 큰 틀에서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짐은 여러 부분에서 당대 흑인 담론의 모습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생각이 깊고 혁명하며 자신을 회생할 줄 알며 혁을 위해 여러 가지 충고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당대 흑인 담론의 “검둥이”(nigger)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또한 짐이 당대 흑인 담론에 포섭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 작품의 처음 부분에서 짐이 헤어볼(hairball)을 가지고 혁의 운명에 대해 점치는 부분은 미신에 빠져 있는 흑인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트웨인의 짐에 대한 묘사가 어느 정도 당대 흑인 담론에 물들어 있고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의 「혁, 짐 그리고 미국의 흑인 담론」("Huck, Jim and American Racial Discourse")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sup>1)</sup>. 이

---

1) 트웨인의 작품을 논의하는데 있어 비평문을 교재로 다루는 것에 대하여 너무 어려워 학생들이 따라올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

비평문에서는 미신 부분도 사실은 짐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짐의 책략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4장에서 짐이 혁의 미래에 대해 점을 쳐주는 부분은 결으로 보기에는 짐의 미신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짐이 그것을 통해 돈도 벌고 일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것은 짐의 영리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92).

흑인 담론과 혁의 관계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여기에서 혁이 어느 정도 짐과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트웨인이 얼마만큼 당대의 흑인 담론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백인이 얼마만큼 흑인 담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혁은 당대 흑인 담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가령 “검등이는 가르칠 수 없다”(67)라고 말하는 부분이나 짐이 홀륭한 모습을 보이자 “속은 백인이다”(125)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짐을 노예 사냥꾼(slave hunter)에게 고발하지 않는다는지, 그를 흑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흑인 담론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학생들과 논의하면 혁이 어떻게 갈등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갈등하다가 혁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짐을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노예 담론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학사에서 유명한 16장과 31장을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다. 필자는 학생들과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그 부분에 들어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작품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깊어진다.

이러한 혁과 더불어 트웨인이 얼마나 양가적인 태도를 지녔는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혁이 끊임없이 사용하는 “깜둥이”(nigger)라는 용어를 학생들과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작품에서 “노예”(slave)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열등하고 인간 이하의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작품 내에서 이 단어는 2백여 번 이상 사용되어 많은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혁 뿐만 아니라 작품 내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 가령 샐

---

의 경험으로는 학생들을 3-4 명 정도로 조를 나누어 공동 작업을 통하여 비평문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하면 큰 무리 없이 잘 따라 오는 듯싶다.

2) 이후 작품의 인용은 「허클베리 펜의 모험」(*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Norton, 1977년 판에 의한다.

리 아주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좌초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어요. 실린더 헤드가 터졌지요.”

“어머나! 누구 다친 사람은 없었니?”

“예. 겸동이가 하나 죽었을 뿐이에요.”

“그래, 참 다행이구나. 때때로 사람들이 다치고는 하니까.” (175)

그렇다면 트웨인이 자신도 등장인물과 같이 흑인 담론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작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백인들이 일반적으로 흑인 담론에 물들어 있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후자라면 트웨인이 흑인 담론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과 이러한 점에 대하여 논의하면 트웨인과 인종 담론과의 관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스티븐 레일톤(Stephen Railton)의 바평문 「짐과 마크 트웨인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Jim and Mark Twain: What Do Dey Stan' for?”)를 학생들과 함께 읽으면 큰 도움이 된다.

흑인 담론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31장에서 43장까지의 도피부(Evasion Section) 또한 홍미롭다. 이 부분은 흑인 담론이라는 시각에서 읽지 않으면 사실 우스꽝스럽기만 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의 논란이 되어왔다.<sup>3)</sup> 하지만 여기에서 짐이 갇혀있는 모습을 남북 전쟁 이후 팀과 같은 백인 지배층에 의해 다시 흑백 차별이라는 감옥에 갇혀진 것에 대한 풍자로도 볼 수도 있다. 혁 역시 백인 지배층인 팀의 부하가 되어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백인(poor white)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의 의미는 이 작품의 논의의 큰 틀이 되는 흑인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3) 33 장부터는 작품의 첫 부분에서 사라졌던 팀이 등장하며 짐은 첫간에 갇히고 혁은 짐의 부하가 되어 우스꽝스런 모습이 연출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엘리엇(T. S. Eliot)이나 트릴링(Lionell Trilling)은 앞부분의 풍자(burlesque)가 다시 반복되는 부분으로 작품의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평한다. 반면 리오 막스(Leo Marx)는 혁과 짐의 자유를 향한 탐색(quest for freedom)이 무효가 되는 실패한 부분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엘리엇, 트릴링, 혁클베리 펜」 (“Mr. Eliot, Mr. Trilling, and Huckleberry Finn”)을 학생들과 읽으면 도움이 된다.

다.<sup>4)</sup> 또한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마지막 장에서 팀이 자신의 모험을 충명하는 탄환을 목걸이로 만들어 자랑하며 계속 우쭐해 있는 부분도 흑백 차별의 현실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혁이 문명화(sivilized)되는 것을 거부하고 변경으로 떠날 결심을 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흥미로운 토론이 된다. 도피부의 소극(burlesque)을 트웨인이 31장까지 자신이 독자들에게 던졌던 문제의식을 없애서 그들과 화해하기 위한 글쓰기 전략으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쟁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가령 이 작품에서 뱃목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논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당대의 흑인 담론과 연관시켜 논의하면 뱃목은 백인 소년과 도망 노예가 당대의 흑인 담론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공동체를 형성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논의를 넓히면 이곳은 미시시피 강변 마을의 종교적인 편견과 문명에서 벗어나 이룩한 민주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뱃목은 미국 사회의 이상이 구현된 미국의 꿈이 이루어진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흑인 담론이라는 시각에서 시작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발전시키면 체계적으로 토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뱃목에 관한 토론에서는 레슬리 피들러(Fiedler, Leslie)의 비평문 「혁 편」 "Huck Finn" 이 큰 도움이 된다.

혁과 짐의 강변 마을에서의 모험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다. 우선 미시시피 강변 마을이 남부라는 점에서 흑인 담론에 물들어 있는 남부 사회에 대한 트웨인의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서 페티트(Arthur Pettit)의 「마크 트웨인과 남부」 (*Mark Twain and the South*)의 「서문」 (introduction)과 이 작품을 다룬 부분을 학생들과 읽으면 도움이 된다. 더 주제를 넓혀보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어두움이라는 측면으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혁과 짐이 하는 여러 가지 모험을 학생들과 하나하나 논의하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토론을 이끌 수 있다.

이 작품의 사실주의적인 측면과 유머에 대한 토론 역시 빠뜨릴 수 없을

4) 이렇게 파악한다면 도피부는 31장까지 계속된 트웨인의 인종 문제에 대한 비판이 당대에 대한 풍자로까지 발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구조상으로 완결된 형태를 가진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것이다. 이 작품은 미국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사실주의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사실주의 측면을 같이 찾아보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 한다. 특히 이 작품에 나오는 방언과 지역적 특성 등을 설명하면서 미국 사실주의 특징 중의 하나인 지방색(local color)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의 문장에서 드러나는 트웨인 유머의 특징을 같이 논의하며, 서부 등 변경 지방의 유머가 어떻게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지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미국 유머의 특징을 논의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뱃목에서 뱃사공들이 벌이는 허풍과 과장의 잔치가 들어 있는 부분이 유용하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노튼(Norton)판에서는 빠져 있는데 옥스퍼드 판(Oxford Edition)이나 1996년에 나온 종합판(Comprehensive Edition)에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sup>5)</sup>

필자는 이 작품을 가르치면서 원작의 논의가 끝난 후 1995년 디즈니에서 나온 스티븐 소더스(Stephen Sommers) 감독의 필름을 학생들과 함께 보았다. 이 영화를 볼 때 학생들에게 몇 가지 점을 주목하도록 하면 작품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령 영화에서 짐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짐과 혁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주목하게 하면 원작과 영화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영화에는 도피부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 영화의 한계에 대하여 흥미로운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다른 영화로는 하퍼 리(Harper Lee)의 소설을 영화화한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 Bird)가 있다. 이 영화 역시 어린이의 눈으로 미국의 흑백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영화와 비교하면 흥미롭다.

또한 원작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면서 필자는 한 학기에 한번 학생들에게 작품에서 중요한 한 장(chapter)을 골라 중요 문장과 단락에 대해 자신의 해설을 달아 오도록 시켰다. 필자가 이것을 시킨 이유는 학생들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발견시키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쟁점은 강의 시간에 다룬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해설을 달아보도록 하였다. 이 과제는 주로 중간시험과 기말 시험 중

5) 가장 최근에 나온 노튼 판에는 이 부분이 들어 있다. 이 작품은 노튼 판이 가장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버클리 판은 삼화가 들어있고 출판 당시의 작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가격이 비싼 편이 있다. 1996년에 나온 종합 판(Comprehensive Edition)은 지금까지의 판에서 빠뜨린 부분이 모두 들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도 비싸고 한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간쯤 주어야 좋다. 왜냐하면 그 때쯤 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중요 쟁점에 대한 이해가 된 후여서 충분히 발전된 토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제를 학기 초에 공고하면 학생들은 학기 내내 토론을 따라 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효과를 낸다.

### III.

『아더왕궁의 커넷티컷 양키』도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마찬가지로 장편소설이므로 학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용 조절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한다. 필자의 경우 학부 3학년 영미 소설 수업 시간에 다른 작품들과 함께 가르쳤는데 전체 내용을 다 가르치는 것이 제한된 교과 시간에 쉽지 않아 전체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뽑아 가르쳤다.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을 2-3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몇 개의 장(chapter)을 각각 배분한 뒤 그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한 쟁점 2개를 뽑아 그것에 대한 답을 쓴 후 학생들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필자가 강의에서 주로 선택한 부분은 Preface- 3장, 6장-11장, 16-18장, 26-30장, 40-46장이었다. 이 작품도 내용이 쉽지 않다. 문장이 짧고 경쾌한 장점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단어나 관용 표현이 많이 나와 학생들이 난해하게 느꼈다. 필자의 경우 앞서 나눈 그룹 학생들에게 내용 요약을 위해 나누어준 장(chapter)과 더불어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는 장(chapter)도 조금씩 나누어 어려운 단어나 관용 표현을 조사하여 배포케 하였다. 학생들이 그 자료가 있으면 훨씬 쉽게 이 작품을 읽어 나갈 수 있다. 앞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는 다르게 이 작품을 다룰 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번역판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사투리나 속어 등 한국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영어가 많이 나오나 이 작품은 문장은 다소 난해하지만 표준 영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여 하나하나 독해를 해 나가야 영어 읽기 능력이 배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 작품을 영화화한 것은 교재로 쓰기에 마땅한 것이 없다. 야구장을 배경으로 해서 어린이용으로 각색한 작품이 있으나 오히려 학생들을 혼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다. 그 대신에 필자는 이 작품을 원작 그대로 녹음해 놓은 오디오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영미 소설 수업도 학생

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일부의 목적이 있으므로 필자는 가끔 작품의 한 장(chapter)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퀴즈를 보았다.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테이프를 시청각 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가끔 퀴즈를 본다고 공고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듣기 연습을 하여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테이프는--많은 영미 소설 테이프도 마찬가지이지만--아마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담론은 산업주의(industrialism)와 모더니티(modernity)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더니티는 산업주의를 포함한 훨씬 큰 개념이다. 그것은 산업주의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의식을 포함한 근대적인 움직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Hall 5).<sup>6)</sup> 그러나 모더니티에 있어서 산업주의 담론은 대중의 눈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며 이 작품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요소이므로 산업주의는 따로 다루는 것이 학생들과의 논의에 편리한 듯 하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산업주의 담론이 모더니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야 하며 트웨인의 동시대인들이 그것에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산업주의 담론과 트웨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용이하다. 트웨인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산업주의 담론에 깊이 물들어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페이지 쇠자기에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았다. 학생들과 산업주의 또는 산업주의 담론에 대한 트웨인의 이러한 꿀림을 보여주는 부분을 작품 내에서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트웨인은 한편으로는 당대 산업주의 담론에 빠져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주의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기계화하고 소외시키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육십 피트나 되는 높은 기둥위의 있는 넓은 판매기였다. 그는 거기에서 24년 동안 매일 하던 것 --몸을 발까지 구부려 빠르게 절하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기도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초시계로 재어 보았는데 그는 24분 46초 동안 1244번을 왕복운동을 하였다. ..그것은 기계에서 가장 필요한

6) 홀에 의하면 모더니티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산업 자본주의, 역사적으로는 근대 국가의 성장,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Hall, 1-9.

운동 중의 하나인 페달운동이었다. 나는 언제인가 고무벨트를 그에게 달아 재봉틀을 돌리려고 그것에 대해 공책에 적어 놓았다. 나는 후에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그로부터 오년간 훌륭한 서비스를 받았다. 나는 일요일과 모든 날에 걸쳐 그를 일하게 했다. 그는 주중과 동일하게 일요일에도 일했고 동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이 서초는 원재료 때문에 드는 약간을 빼고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았다. (213-4)<sup>7)</sup>

학생들과 함께 위와 같은 부분을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논의하면 트웨인이 당대 산업주의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이었는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트웨인이 당대 산업주의 담론에 어떻게 포섭되어 있고, 또 어떻게 벗어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면, 학생들이 이 작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효과가 높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은 아마도 43장인 샌드벨트 전투("The Battle of the Sand-belt")일 것이다. 여기에서 행크와 그의 사관들은 자신들이 학살한 "세 계의 죽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439)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서 이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한 개틀링 총, 전기 사형 등이 당대에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던 발명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작품이 산업주의 담론에 대한 묵시록적인 비판인 것은 분명하다. 행크는 자신이 표현한 대로 "자신들의 뒷"(443)에 빠진 채 묵시록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뒷부분의 묵시록적인 비판이 있지만 작품 전체적으로는 끊임없이 산업주의 담론에 대한 꿀림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를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토의하게 하면 흥미로운 논의를 계속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산업주의 담론과 관련시켜 트웨인이 모더니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느냐하는 이슈를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작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틀은 모더니티 담론이며 산업주의 담론에 대한 논의도 이런 모더니티의 틀 안에서 이루지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항상 상기시켜주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모더니티 개념에 대해 먼저 학생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이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7) 이후 작품에 대한 인용은 「아더왕궁의 커넷티컷 양키」(*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1889. Ed. Bernard L. Stei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3에 의한다.

책 서문("Introduction")과 마샬 베먼(Marshall Berman)의 책, 「모든 단단한 것들이 허공으로 녹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의 서문이 큰 도움이 된다. 이 작품이 모더니티에 대한 트웨인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10장 문명의 시작("The Beginnings of Civilization")이 논의하기 좋은 부분이다. 여기에서 트웨인이 캐멀럿에 세우는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그는 여기에 19 세기 말 미국과 유사한 "활기찬 문명"(136)을 세우고자 한다. 그는 "모든 종류의 산업"(all sorts of industries) 이외에도 "근대적 학교"(modern graded school)와 "사관학교"(military academy)를 세우고 다시 "언론"(journalism)과 "전선"의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더 나아가 그는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세계 개혁"을 하고 기존의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교도 교회(Protestant Churches)까지 세운다. 이것은 이 작품에서 트웨인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산업주의를 넘어 모더니티 자체인 것을 의미한다. 작품 내에서는 10장 이외에도 이것에 대해 시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던지고 함께 이런 부분을 찾아가면 흥미로운 수업을 이끌 수 있다.

그렇다면 트웨인이 모더니티에 대해 얼마만큼 포섭되어 있고 얼마만큼 비판적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학생들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산업주의 담론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트웨인은 모더니티 전 과정, 또는 근대화 과정에 대해 친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하고 있다. 작품 내에서 이러한 두 부분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찾아보고 토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트웨인의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학생들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서 행크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적 이성"(technical reason)으로 무장된 모더니티의 현상으로서 전문가이다. 그들은 아도르노가 지적한 것처럼 더 이상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종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체제에 반대하는 개인의 비효율성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도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8-15). 그러므로 기술적 이성으로 무장된 전문가가 자배적 현상이 되어 가는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은 20세기 초에 나치나 스탈린 체제가 보여준 것처럼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시각에서 40장 이후의 장을 논의하게 되면 샌드벨트 전투에서의 반대파 기사들에 대한 대학살은 근대적 현상으로서 전문가인 행크에 대한, 더 나아가 모더니티에 대한 트웨인의 묵시록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로 돌아와 또 다른

화자인 “나”(I)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행크는 바로 현대 독자들에게 모더니티의 “덫”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런 시각에서 한 번 논의하고 작품 전체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 찾아보도록 하면 학생들이 작품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화자인 행크에 대해 거리를 두는 작가 트웨인의 모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작가와 화자간의 거리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모더니티에 대한 트웨인의 찬탄을 동시에 논의하여 그의 양가성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더니티에 관련하여 작품에서 드러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트웨인의 태도 역시 학생들과 논의할 만하다. 트웨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행크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남녀가 다 같이 평등한 자유를 갖는”(398)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다. 작품 속에서 학생들과 이러한 행크의 모습을 토론하면 트웨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렬한 찬동을 잘 알 수 있다. 행크가 아서왕으로부터 귀족 칭호를 거부하고 대장장이가 호칭한 “보스”라는 이름을 국민으로부터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행크의 민주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상세히 토론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인간[그 귀족]이 아서왕의 영토에서는 사람들의 아침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았다. 비록 그 인간의 성품이 그의 지능만큼 저열하고 그의 도덕성은 그의 집안 계보만큼 형편없을 지라도 말이다. 때때로 그 사람은 왕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나는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었다. 나도 작위 하나쯤은 쉽사리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눈에 내가 더 높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왕의 눈에까지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 . . 나는 국민 자체, 권력의 유일한 원천인 그 곳으로부터 나오는 호칭--나는 그것을 갖기를 원했는데-- 말고는 기분 좋게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우며 잘 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68-9)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행크의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품의 결말에서 국민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모더니티에 연관시켜 논의하면 좀 더 큰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듯싶다. 즉 이러한 양가성은 앞서 논의한 모더니티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전체주의성과 관련시켜 논의하면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트웨인이 모더니티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민주주의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전체주의적인 경향에 의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더니티에 관련되어 또 하나 논의해야 할 것은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중세에 대한 트웨인의 비판이다. 이 작품에서 중세는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전제 정치의 장소이며 후진적인 지역이다. 이 작품에서 재현되는 이러한 중세의 모습을 먼저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티와 상반되는 후진적인 지역이라는 것은 2장에 나타나는 짐승 같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나 미신에 찌들어 있는 중세인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어쩌면 봉건 기사 제도에 대한 트웨인의 끊임없는 풍자는 이러한 후진적인 중세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상반되는 전제적인 정치 체제로서 중세에 대한 묘사는 이 작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범죄를 대표하지 않는 왕좌는 없다”(37)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봉건 전제 정치에 대한 트웨인의 태도는 분명하다<sup>8)</sup>. 작품에서 모간 르 페이(Morgan le Fay)의 전제 정치나 <sup>9)</sup> 장원 저택의 비극 <sup>10)</sup>(The Tragedy of the Manor House) 등 의 장에서 나타나는 억압적인 봉건 전제 정치의 모습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페이 여왕이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9년간이나 각각 옆방에다 가두어 두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실수하여 미끄러진 시종을 칼로 절려 죽이는 모습은 트웨인이 그리는 중세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이다.

그렇다고 하여 트웨인이 중세를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트웨인이 중세 정치 체제나 사회 시스템을 민주주의나 모더니티와 대조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놓치기 쉬운 점은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트웨인이 중세에 대해 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1장, 11장 등에서 나타나는 캐멀렛이 마치 미시시피 강변의 평화로운 모습을 연상시키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 대한 묘사 역시 그들의 후진성에 대해 풍자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활력에 끌리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 트웨인이 중세에 대해 완전히 비판

8) 봉건 전제 정치에 대한 트웨인의 비판은 「허클베리 펁의 모험」에서 왕과 공작에 대한 비판이나 「왕자와 거지」(The Prince and the Pauper)에서 나타나는 비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것에 대해 설명하면 트웨인의 봉건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트웨인이 중세가 가진 활력과 평화로움에 주목하고, 그것이 모더니티가 주는 경쟁과 속도의 "현기증"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을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세에 대한 끌림은 트웨인의 모더니티에 대한 양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있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의 비판을 쉽사리 알아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트웨인의 비판은 중세 봉건 체제나 후진성에 대해서는 명백하다. 하지만 산업주의 담론이나 모더니티에 대해서는 43장에 이를 때까지는 쉽사리 알아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비판은 작품의 처음부터 나온다. 가령 모더니티의 모습에 대해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139)이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10장에서부터 이미 등장한다. 또한 행크의 전제주의적인 측면 역시 도전하는 기사들을 무자비하게 폭탄으로 "원형질체"로 만드는 작품의 초반부에서부터 등장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쉽사리 알아채지 못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학생들에게 유의하게 해야 한다.

이것과 연관하여 작품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유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유머는 트웨인의 유머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그러나 또한 그 유머에 의해 트웨인의 비판이 감춰진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유의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트웨인의 중세 기사에 대한 비판은 유머러스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트웨인의 유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들은 그것에 빠져 그 속에 숨어 있는 중세 봉건체제에 대한 그의 비판을 잊을 수가 있다. 가령 기사들을 "올가미로 잡는"(lasso) 그의 유머 속에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는 리볼버 총(dragoon revolvers)과 폭탄이 있다. 학생들에게 그러한 점을 유의시키면서 작품을 보게 하면 트웨인의 유머를 즐기면서 동시에 그의 문제의식을 찾아낼 수 있게 한다. 특히 이 작품의 나오는 방언적 유머(vernacular humor)는 미국의 유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 학생들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품에 대한 이러한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트웨인의 근본적인 태도는 양가성이다. 즉 그는 이 작품 논의의 큰 틀인 산업주의 담론과 모더니티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중세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양가적인 태도를 지녔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양가적인 측면은 이 작품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는데도 아주 좋은 작품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논의가 진행되면서 양가적인 측면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토론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포괄적 사고를 하였다. 필자는 학기말에 이 작품에 대한 토론 문제를 내었는데 답안들이 대부분 양자를 포괄하는 측면에서 논의하여 이 작품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 대학에서 영미 소설 교육의 목적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인문학적인 교양의 함양, 즉 비판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작품이야말로 이것을 기르는데 적합한 교재가 아닌가 생각된다.

### 참 고 문 현

- Berman, Marshall.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NY: Penguin, 1988.
- Budd, Louis J. *Mark Twain: Social Philosopher*. Bloomington: Indiana UP, 1962.
- Fiedler, Leslie. "Come Back to the Raft Ag'in, Huck Honey!"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413-21. New York : Norton, 1977.
- Hall, Stuart. Introduction. *Formation of Modernity*. Ed. Stuart Hall and Bram Gieben. London: Polity Press, 1992. 1-16.
- Horkheimer, Max, and Theodore W. Adorno. *Dialectic of Enlightenment*. 1944. Trans. John Cumming. NY: Continuum, 1972.
- Lawrence, D. H.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Penguin, 1977.
- Mark, Leo. "Mr. Eliot, Mr Trilling, and Huckleberry Finn" Ed. M. Thomas Inge. *Huck Finn among the Critics*. Frederick: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85.
- Pettit, Arthur. *Mark Twain and the South*. Lexington: UP of Kentucky, 1974.

- Smith, David. "Huck, Jim, and American Racial Discourse."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k Twain*. Ed. Forrest G. Robinson. New York: Cambridge UP, 1995.
- Schmitz, Neil. "Mark Twain's Civil War: Humor's Reconstructive Writing."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k Twain*. Ed. Forrest Robinson. Cambridge: Cambridge UP, 1995. 74-92.
- Smith, Henry Nash. *Mark Twain's Fable of Progress: Political and Economic Ideas in "A Connecticut Yankee."* New Brunswick, NJ: Rutgers UP, 1964.
- Twain, Mark.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Ed. Thomas Cooley. New York : Norton, 1977.
- ,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1889. Ed. Bernard L. Stei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3.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 최정선

한국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부

137-7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687 유원아파트 101-301

Tel: (02) 533-2971/ H.P.: 011-9860-2971

Email: jsch12@hanmir.com

Revised in June, 2004

Reviewed in July, 200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August, 2004